

최신 ICT 이슈

III. 실리콘밸리 노동자의 90%는 1997년에 비해 실질소득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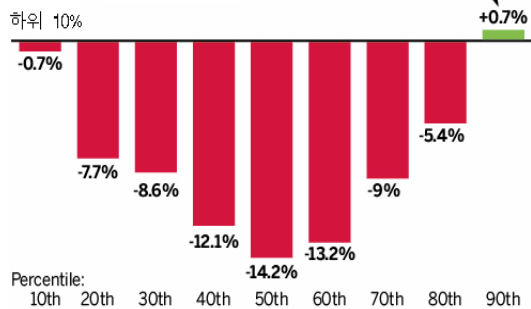
■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크루즈 캠퍼스(UCSC)와 노동 분야 싱크탱크 그룹인 'Working Partnership USA'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소득 실태를 조사

- ▶ 소득 조사 후 1997년과 비교해 임금 상승분을 인플레이션율로 공제한 값을 계산했는데, 그 결과 테크놀로지 계열 종사 노동자의 수입은 1997년 이후 평균 32% 증가한 반면, 그 외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- ▶ 전체 조사 대상 노동자를 소득별로 나열해 100분위 구간으로 나누면, 중앙값에 해당하는 50번째 노동자의 수입은 1997년에 비해 14%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

- ▶ 결과 그래프를 보면, 10개의 막대 중 9개가 빨간색(마이너스)으로 되어 있는데,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수입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거주자는 전체의 10%에 불과하고 그들의 소득 증가율도 0.7%에 불과함

실질임금 변화, 1997-2017



<자료> Working Partnerships USA

[그림 1] 1997~2017 실리콘밸리 노동자 임금 비교

- ▶ 이런 조사 결과는 현재 미국이 나 홀로 호황과 낮은 실업률로 형편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는 가정경제의 개선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줌

■ 2001년 이후 실리콘밸리 지역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주민 1인당 GDP 성장률이 74%에 이르지만, 이러한 성장이 반드시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란 지적이 그간 계속 제기되어 왔음

- ▶ 2001년에는 실리콘밸리 전체가 번 돈의 64%가 노동자에게 분배된 반면, 2016년에 이 비율

*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(☎ 042-612-8296)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(soma0722@naver.com ☎ 02-576-2600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.

은 60%로 감소했으며, 줄어든 금액 약 96억 달러는 투자자와 기업 소유자들에게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음

- ▶ 이번 조사를 진행한 UCSC의 크리스 벤나 교수는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매출과 부는 놀라운 것이지만, 한편으로 대다수 인구에게 적용 가능한 경제 모델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도 놀라운 것이라 평하고 있음
 - ▶ 벤나 교수에 따르면 이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대형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각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지배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고, 투자자와 일부 최고 임원들에게 보다 많은 돈이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
- **실리콘밸리에서 부의 분배율 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변화가 테크놀로지 이외 분야의 일에 종사하는 주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**
- ▶ 실리콘밸리에서는 모든 것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, 특히 주거비용의 급상승이 안정적 생활의 최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 - ▶ 교사와 소방대원으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았던 지역에 살 수 없게 되었으며 주거비용이 더 낮은 교외로 이전을 강요당하고 있음
 - ▶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크나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임

[참고문헌]

- [1] UC Santa Cruz, 10. 8, <https://bit.ly/2QAEyJS>
- [2] The Mercury News, 11. 18, <https://bayareane.ws/2TNNAwa>